

제5차 농어업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1. 개요

□ (일시/장소) '20. 10. 26(월), 11:00~13:00 / 농특위 대회의실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16층

□ (참석 인원) 24명 참석 (참석자 명단 별첨)

- 분과위원 : 20명 중 13명
- 사무국 : 정현찬 위원장, 김영재 사무국장, 박순연 사무부국장 등 11명

□ (개최 내용)

- 농어업분과 제2기 분과위원 위촉장 수여식 시행
- '20년 하반기 소분과 운영 방안 보고 및 논의 등

2. 세부 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1:00~11:05 (5')	○ 개회 및 국민의례	농어업정책팀장
11:05~11:30 (25')	○ 위원 소개 및 위촉장 수여식	농어업정책팀장
11:30~11:35 (5')	○ 위원장 격려말씀	정현찬 위원장
11:35~11:40 (5')	○ 제 5차 농어업분과위원회 회의 ○ 분과위원장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11:40~12:55 (75')	○ 소분과 하반기 운영계획 보고 및 논의	각 소분과장
12:55~13:00 (5')	○ 정리 및 폐회	분과위원장

3. 회의 결과

- (위촉장 수여식) 농어업분과 제 2기 위원 대상 위촉장 수여
 - 기존위원 15명과 신규위원 5명 중 참석한 농어업분과위원 13명 대상으로 농특위 위원장이 위촉장 수여
 - * 제 2기 위원 위촉 기간 : '20. 9. 3. ~ '21. 9. 2.
- (소분과별 운영계획 보고)
 - (가격 및 경영 안정) 주요 의제를 정리하여 12월 본 위원회에 의안 상정 추진 계획임. 재해보험 관련 의제는 내년 추진에 앞서 토론회 또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임
 - 단, 차기(10.28) 소분과 회의에서 의제 정리 현황을 재검토하고 의안 상정 일정을 조정할 계획임
 - (농지제도개선)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확인(12월) 및 소분과 논의 후 현장간담회와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 이후 본위원회 상정('21. 2월) 추진
 - (공익형직불제) 공익형직불제 확대방안 의안을 분과위원회·운영위원회 검토(12월 초순 예정) 후 본회의 상정(12월 중순) 추진
 - (축산)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및 사료자급을 제고 방안 의안을 11월말까지 마련 후 본위원회 상정(12월) 추진
- (분과위 운영 관련 논의 주요 내용)
 - 내년 4월 분과위원회 1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 추진 필요
 - 소분과 의제의 논의 방향은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큰 틀에서 농정을 바꿀 수 있는 논의를 해야 함

- 차기 분과위 개최에 앞서서는 위원들께 각 소분과별 의제 추진 현황 및 연구용역 추진 현황 공유 필요
- 논쟁이 있는 논의 추진 여부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쟁점을 좁혀가는 과정이 논의의 목적이거나 합의가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대로 합의되는 부분은 합의해서 가는 것이 농특위 논의 운영방식에 적합
- 농특위가 생산하는 자료는 공개요청이 있을시 절차에 따라 공개하나, 부처 생산 자료는 공개를 위해서는 부처 협의가 필요
- 소분과 의안 초안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 과정인 토론회 또는 간담회가 있을시 분과위원님들이 꼭 참석 필요

4. 향후 일정

- 제6차 농어업분과위원 개최 일정(12.3)
- 농어업분과 운영소위 개최 일정(11월 중)은 사무국에서 조정 후 통보

붙임1 제5차 농어업분과위원회 참석자 명단

연번	성명	현직	비고
1	김한중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업부회장	분과위원장
2	조병욱	전국농민회총연맹 함안군농민회 회장	농지제도개선 운영소위위원
3	박일진	완주한우협동조합 총무이사	축산소분과 운영소위위원
4	정학철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가격안정소분과 운영소위위원
5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공익형직불 운영소위위원
6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가격안정소분과
7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축산소분과
8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혁신 총괄지원단장	가격안정소분과 공익형직불
9	이학래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농지제도개선소분과
10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공익형직불
11	최철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급식전략본부장	가격안정소분과
12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축산소분과
13	최동근	친환경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농지제도개선소분과 공익형직불
14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부장	관계기관
15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	-
16	김영재	농특위 사무국장	-
17	박순연	농특위 사무부국장	-
18	이반석	농특위 사무국 수행비서	-
19	손영준	농특위 농어업정책팀 농어업정책팀장	-
20	김상경	농특위 농어업정책팀 사무관	-
21	김한승	농특위 농어업정책팀 사무관	-
22	최수형	농특위 농어업정책팀 전문관	-
23	김창호	농특위 농어업정책팀 전문관	-
24	이상규	농특위 농어업정책팀 전문관	-

- (정현찬 위원장) 반갑습니다. 신규 위원 및 기존 위원님 모두 위촉됨을 축하드립니다. 작년 12월 대통령께서 한국 농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농어업분과위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화학 농법 위주의 농업으로 우리 먹거리가 대다수의 국민에게 안전성에 의심을 갖게하고 있습니다. **농정의 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산물 유통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농식품부, aT, 농협,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분과위원과 공유하여 농산물 가격안정 및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자 함.
- (김영재 사무국장) 지금은 그 동안의 의제를 정리하고 내년에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할 시기이나 코로나로 인해 논의의 진전에 한계가 있었음. **힘겹더라도 각 소분과에서 지금부터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의의 성과는 농특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함. 의안이 나오면 관계부처와 협의도 해야 하므로 일정을 염두하고 의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연 사무부국장) 농어업분과는 농민들이 관심이 많은 가격안정 및 재해, 유통, 축산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사업국에서 힘 닿는대로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내년 4월 분과위원회 1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는 농어업분과 위원님들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한중 분과위원장) 반갑습니다. 우리 분과의 의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농업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안건이 나올 수 있도록 분과위원님들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농업정책이 변경되고 있음. 이에 농촌이 힘들어지고 국민들한테는 보조금 받는 집단으로 매도되기도 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야할 사안입니다. **농촌에 갈등이 해소되고 삶의 질이 개선되고 농업이 먹거리에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홍 위원) 신규 농어업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축산은 많은 전문성과 디테일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소분과에서 다루는 의제는, 전문적이고 생산자 중심적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심도 있게 결과를 도출해야하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획일적이고 고집과 아집 속에서 결과를 이끌어 내려고 하려는 것 같음. 그러기에 내년 4월까지의 생산자와 실무단계의 벽에 막혀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경축순환활성화도 실제적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 대표인 저 또한 경축산업농업활성화 방안에 대해 역할을 하고 싶고, 실무적으로 양돈과 한우의 틀에서, 양돈은 기업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고 한우는 차별화가 크게 되어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 반영이 되어야함. 또한 저는 자원순환협회의 차기 회장으로 추대되고 있기에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축순환농업활성화 논의에도 참여를 해야 함.
- 축산소분과의 분과장이 모든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분과 참여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제대로 된 의견이 나와야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원 위원) 지금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소속이나 이전에는 전라남도청 소속이었음. 전라도에 있을때 전남형 공익 시장도매인제도를 추진했었고 이에 대해 농식품부나 일부 농민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음. **농특위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의제에 대해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
- **가급적 이견을 좁히고 안을 단일화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농정틀 전환을 위해서는 이견과 갈등이 있다고 의안 마련을 차기로 미룬다면, 농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가 제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그간의 경매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 도매상들이 유통과정에서 부러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전남도가 50%이상 출연하고 해당품목 생산자가 운영주체로 참여하고, 조례에 의해 기준가 이하로

거래되면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전남형 공익 시장도매인제도의 내용임. 민간이 운영하는 시장도매인과 동일하게 비판하는 것은 오해임. 농특위 내부에서 올라오는 의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리하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서용석 위원) 한농연은 공식적으로 전남형 공익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함. 이 건은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사안이 아님. 가락 시장에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것에 반대하는 측에 대해 농민에 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에 대한 토론을 떠나서 정치적인 언급으로 판단되어 유감임.
- (정학철 위원) 추후 가격안정 소분과 회의에서 전남형 공익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 의안화 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임. 이 건은 소분과에서 의안화 된 것이 아니기에 아직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됨. 가격안정 소분과 회의에 위원님들이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람.
- (김영재 사무국장)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 농특위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됨.
 - 소분과에서 논의 내용이 현장, 특히 농민단체에 정확히 전달이 안되는 것 같음.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농특위에서 진행되는 논의는 현장의 농민들이 공유하고 문제 제기 할 수 있게끔 논의 구조를 열어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전남형 공익 시장도매인제도는 국회에서도 논쟁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추진 여부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지금부터 참여하게 선을 그어놓고 가는 방식은 농특위 논의 운영방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 누구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쟁점 되는 의견은 좁혀가는 과정이 논의의 목적임. 합의가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대로 합의되는 부분은 합의해서 가는 것이 논의 운영방식에 적합하다고 생각함.

- (박일진 위원) 축산소분과에서는 의제 추진을 위해 축산단체, 단체장, 생산자 등과 그 동안 논의를 많이 했음. 그러한 과정에서 당초의 추진 방향이 변경되기도 했고 이견이 많이 좁혀지기도 했음. 이제까지 정리된 의제에 대해 수용할 수 없고 합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길 각 축산단체에 요청한 상태임.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주시기 바람. 단, 이같은 방식으로 의제의 결론이 정리가 되면 그 결과를 존중해 주셨음 함. 축산소분과에서는 단시각적인 현안 개선안이 아닌 장기적으로 축산이 나아갈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임.
- (최준호 위원) 기후변화에 의한 농수산물의 재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격안정소분과에서 추후 재해 관련 논의를 추진 시에 연계 잘 해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소분과에서의 논의는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큰 틀에서 농정을 바꿀 수 있게 긴 호흡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봐야 함. 더불어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를 설득해야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야함. 시민과 소비자들이 이러한 농정 틀 변화에 동의하거나 공감할 수 있어야 힘을 받고 의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임. 공익형직불제의 농어업에 대한 직불금 및 축산환경과 사람과의 조화 등의 의제가 단기적으로는 생산농가의 이익과는 상충될 수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기가 어렵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의 동의가 남아있기에 결국 설득 대상은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람.
- (김태연 위원) 전체회의 처음 참석임. 전체회의 역할에 대해 의문임. 소분과에서 결정된 사안은 전체회의에서 따라주면 되는 것인지. 또 오늘 각 소분과 보고는 쟁점에 대한 내용은 없고 추진상황 보고였음. 분과위 전체회의에서는 각 소분과별로 쟁점을 보고하고 분과위에서 그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함.
- (김영재 사무국장)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소분과에서 만든 의안 초안을 검토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할 의안을 결정하는 것임. 각 소분과에서

의제 추진이 지연되어서 오늘은 분과위에 상정할 의안이 없었고 앞으로 의안 상정 계획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보고한 것임. 앞으로 분과위 개최에 앞서서 위원들께 각 소분과별 의제 추진현황 및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공유해 드리기 바람.

- (이학래 위원) 농특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도록 생산자 위원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음. 그러다보니 논의 사안에 따라 갈등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국가도 자원배분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농특위에서도 논의 과정 중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고 더 큰 차원에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원 위원) 농특위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람. 더불어, 향후 논의 의제로 소비지에서의 차액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함.
- (김영재 사무국장) 검토과정의 자료는 대국민 공개가 불가능함. 단, 농특위 위원님 대상으로는 요청하시는 자료는 드릴 수 있음.
- (최동근 위원) 각 소분과 논의 시 관련 부처 담당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또한, 각 소분과 논의 결과를 모든 분과위원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함.
- (손영준 팀장) 대부분의 소분과 회의에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음. 농특위가 생산하는 자료는 공개요청이 있을시 절차에 따라 공개해 드림. 부처 생산자료는 공개를 위해서는 부처 협의가 필요함. 제 6차 본위원회 결과는 총괄팀에서 정리 되는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음.
 - 소분과가 의안 초안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 과정인 토론회나 간담회가 있을시 분과위원님들이 꼭 참석해 주시길 당부. 올해는 의안 초안 마련이 많이 늦어져서 3개 소분과의 의안을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세세하게 검토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요청을 드림.
 - 소분과에서 초안이 확정이 되면 분과위 운영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이 확정되고, 추후 본위원회 운영위와 본회의에서 의안이 확정될 것임.

- 본위원회가 12월 세째주에 개최될 예정임. 일정에 의해 12월 3일에 분과위원회에 개최되어야함. 운영소위 일정은 각 소분과 의안 검토 일정이 확정된 다음 정해야할 사안임.
- 농특위 주요 행사로 전국순회 원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계신 지역에 원탁회의가 개최될시 시간이 되시면 참석 부탁드립니다.
- (김한중 위원장)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차기 농어업분과위 전체회의는 12월 3일에 개최하겠음. 이상 회의를 폐회하겠음.